**로버트 A. 피터슨 박사, 신학 전문, 세션 6,**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

© 2024 Robert A. Peterson 및 Ted Hildebrandt

이것은 로버트 A. 피터슨 박사와 그의 신학 또는 신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이것은 세션 6, 아버지는 신입니다.   
  
우리는 신학, 신의 교리에 대한 강의를 계속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삼위일체 교리를 구축하면서 일곱 가지 진술을 합니다. 삼위일체의 역사적 신학을 조사한 후,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신명기 6:4, 5, 야고보서 2:19, 디모데전서 2:5, 6에서 그것을 도출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숫자 1.

두 번째, 아버지는 신입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 성령은 신입니다. 다섯 번째,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분리될 수 없지만 구별됩니다.

우리는 인격을 분리하지 않지만, 우리는 그들을 구별합니다. 우리는 그들을 혼동하지 않습니다. 분리할 수 없는, 그들은 하나의 신이지만, 구별됩니다.

경제에서, 역사에서, 구원의 역사에서 그들은 서로 다른 역할을 합니다. 여섯째, 성부, 성자, 성령은 서로 내주합니다. 특히 요한 복음에서 계시된 놀랍도록 신비로운 교리입니다.

신약성서는 삼위일체에 대한 완전한 교리를 가르치지 않지만, 본질의 동일성, 페리코레시스, 인격의 할례라는 개념은 삼위일체를 암시합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일곱, 즉 성부, 성자, 성령은 하나이고 평등하게 존재합니다.

세 신이 아니라 한 신이 있고, 세 인격은 그 자체로 동등합니다. 물론, 아들 은 성육신에서 종속됩니다. 아버지는 신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신성은 성경에서 너무나 분명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가정합니다. 사실, 저는 그것이 무시되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신성을 보여줄 필요가 없습니다.

글쎄요, 저는 당신이 모든 것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신성은 여러 각도에서 보여집니다. 여기에는 신성한 칭호, 그리스도와의 관계, 신성한 속성이나 자질, 그가 받는 예배, 그리고 신성한 행위가 포함됩니다.

이 중 대부분은 지금 당장은 이름이 떠오르지 않는 철학적 속담입니다. 이런 종류 중에서 신적 칭호가 진정으로 부여된 사람은 신, 즉 삼단논법입니다. 그것들은 삼단논법입니다.

성경은 진실로 아버지 에게 신성한 칭호를 부여합니다. 그러므로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이 아버지를 언급하는 방식은 그가 하나님이심을 드러냅니다.

그는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예수의 입에서 나온 것입니다. 예수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는 갈릴리 바다 주변의 갈릴리 도시에서 대부분의 기적을 행했지만,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들을 혹평한 다음, 신성한 주권에 대한 놀라운 진술을 합니다. 먼저, 그는 그들에게 인간의 책임, 책임성, 실패에 대해 언급합니다. 당신들에게 화가 있습니다! 그는 그들을 축복합니다.

당신에게 행해진 기적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행해졌다면, 그들은 회개했을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악의 대명사였습니다. 당신의 심판은 그들의 심판보다 더 심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더 큰 빛은 더 큰 책임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더 큰 빛을 거부하면 더 큰 심판이 따른다. 마태복음 11장 25절. 그때에, 곧 말씀하신 후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 날에 소돔 땅이 너희보다 더 견딜 만하리라.

신성하다는 말은, 대문자와 굵은 글씨, 기울임체로 쓴 신에 대한 인간의 책임과 의무를 뜻하는데, 영어로 강조를 하는 방식입니다. 어쨌든, 그때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주재이신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친구들이여, 그것은 신적인 칭호입니다.

당신께서 지혜롭고 총명한 자들에게는 이런 것들을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드러내셨나이다. 그렇습니다, 아버지여, 이것이 당신의 은혜로운 뜻이었나이다. 모든 것이 아버지께서 내게 넘겨 주셨고,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나이다.

그리고 그는 이것을 짐으로 실었습니다. 아들이 그를 드러내기로 선택한 모든 사람에게. 신성한 주권. 아들의 주권.

그는 갈릴리 도시들의 불신을 비난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아들이 계시하기로 택한 사람들 외에는 아무도 아버지를 알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인간의 책임, 신의 주권.

바로 다음 단어, 인간의 책임.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내 멍에를 메고 내게서 배우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 영혼이 안식을 얻을 것이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신의 주권, 인간의 책임, 긴장은 삼위일체나 그리스도의 인격의 두 본성의 신비만큼 중요한 신비는 아니다. 하지만 그것은 똑같이 신비하며 성경은 그것을 가르친다.

그만둘게. 다른 구절로 오랫동안 갈 수도 있을 거야. 손을 잡고 나란히 놓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둘 다 긍정해야 합니다. 어쨌든, 저는 당신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늘과 땅의 주. 오직 하나님만이 하늘과 땅의 주라고 불릴 수 있습니다 .

요한복음 17장, 위대한 제사장 기도에서 예수님은 거룩하신 아버지, 의로운 아버지, 의로운 아버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신성한 칭호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당신의 이름으로 아들에게 주신 백성을 지켜 주십시오. 이는 당신이 나에게 주신 것으로,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는 이 아름답고 아름다운 기도에서 아버지를 신으로 부릅니다. 거룩한 아버지. 거룩한 아버지가 있고, 거룩한 아들이 있고, 성령이 있습니다.

모든 신성한 칭호. 모든 위로의 신. 고린도후서 1장은 그리스도인과 목사들이 가장 좋아하는 장입니다.

왜? 그 안에 아름다운 가르침이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1:3,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찬송이 있을지어다.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니 그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시나니 이것이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시는 한 가지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께 위로받는 그 위로로 어떤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은 신인가. 모든 위로의 신은 아버지라고 불린다.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우리의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데, 왜냐하면 우리는 신이 신이고 그는 신이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저 가정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성경에서 우리 신앙의 모든 측면을 증명해야 합니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게 위로를 주시고, 그 위로를 다른 사람들에게 주시는 분이 이 맥락에서 그의 백성에 대한 사랑과 연민으로 가득 찬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 큰 정신적 체조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1:17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위대한 문단에 대해 생각해보면 무엇이 떠오르는지 말씀해 주시면, 사람들이 에베소서 1:15를 그 장의 끝까지 읽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영광스러운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라고 부른다는 사실을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냥 넘어가고,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정확히 함으로써 하나님을 더 잘 영화롭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그것이 우리의 생각과 기도에서 더 나은 자리를 차지할 것이고, 저는 이 강의 시리즈에서 그렇게 말했다고 생각합니다.

체계 신학은 주해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것은 두 가지 방식으로 작용합니다. 첫째, 그것이 정통적인 방식 으로 올바르게 행해진다면 그것은 주해에 기반을 두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둘째 , 성경의 가르침을 연구하는 것은 주해에 정보를 제공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것을 실제로 보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수년간 속죄 교리를 가르치면서 Christus Victor에게 그리스도가 우리의 적을 물리치는 강력한 챔피언이라는 것을 가르쳤고, 창세기 3:15에서 요한계시록 5장까지 성경 곳곳에 그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챔피언입니다. 그리스도는 승리자입니다.

그는 우리의 적을 물리칩니다. 그는 악마를 몰아냅니다. 그는 악마를 파괴합니다.

아시죠, 하루 전에 우리를 판단하지 마세요. 그런 모든 것들. 그런데 학생들이 이렇게 행동하는 걸 봤어요.

와, 정말 멋진 성경적 주제네요. 저는 그런 글들을 전에도 읽어봤지만 지금처럼 느낀 적은 없었어요. 좋아요! 체계학은 주해에 기반을 두어야 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성경의 가르침을 이해하듯이 거기에 무엇이 있는지 이해하도록 도와서 주해적 이해를 자극해야 합니다. 신학, 기독교 신학의 전부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에베소서 1:15에서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여러분의 사랑을 들었기 때문에, 나는 여러분을 위해 감사하는 것을 그치지 아니하고, 기도할 때 여러분을 기억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곧 아버지이시며, 그를 성육신하신 아들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분입니다. 이 영광의 소유격은 물론 영광스러운 아버지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내가 본 적이 있다면 신성한 칭호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스러운 아버지. 오, 나의 말씀입니다. 그분께서 당신의 삶, 당신의 눈, 당신의 마음을 밝게 하신 그분에 대한 지식 안에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세 가지를 놀랍게 설명해 주십니다.

우리가 가진 소망,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능력의 위대함, 그리고 나는 실제로 그것들을 순서 없이 가져갔습니다. 하나님의 부요함, 그가 우리를 부르신 소망. 성도들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기업의 부요함과 하나님의 큰 능력.

그가 실제로 발전시키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믿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예수께서 다시 오셔서 베드로가 1장 3절에서 5절에서 말한 놀라운 유산을 우리가 갖게 될 것이라는 확고한 소망입니다.

성도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유업은 성도들입니다. 당신 말해 ,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신이 꼴찌상을 차지한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5장에서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 힘을 주셨으며, 교회를 흠 없고, 티 없고, 아름답고, 죄나 불완전함이 전혀 없는 신부로 자신에게 바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은혜로 교회를 전투적인 단계 이후에 승리한 교회로 바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의 영광을 통해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그는 성도들 안에서 그의 영광스러운 유업의 부를 천사들에게 나타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의 성도들을 상속받습니다. 어쨌든, 저는 아름다운 구절로 들어가겠습니다. 하지만 주요 아이디어는 이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영광스러운 아버지이며 성육신하신 예수의 주님입니다.

에베소서 4장에서 바울은 교회의 연합에 대한 결정적인 성경적 진술을 합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독자들에게 연합과 평화를 추구하라고 권고한 후, 그는 한 몸과 한 영이 있다고 말합니다. 마치 여러분이 부르심에 속한 한 소망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처럼, 한 주님, 한 믿음, 한 세례, 한 하나님, 모든 이의 아버지이시며 모든 이 위에 계시고 모든 이를 통하여 모든 이 안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것의 한 하나님 아버지는 아버지의 신성을 보여줍니다. 그리스도의 한 몸, 교회, 한 영, 분명히 성령, 영생에 대한 한 소망, 한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한 믿음, 한 세례. 그것은 그리스도교 세례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따른다는 사도행전의 패턴을 따르는 것입니다.

유아 세례를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그것에 대해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을 통하여 계시고, 모든 것 안에 계시는 한 분의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것은 우리의 걱정의 마지막 표현입니다. 그는 신입니다. 그는 최고입니다.

그는 전반적으로, 모든 것을 통해, 모든 것 안에 있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더 강조해서 말할 수 있었을까요? 야고보서 3장 9절, 오, 맞아요, 환유법으로 말하는 것 또는 인간의 혀에 대한 구절입니다. 혀는 그것이 생산하는 것, 즉 말을 위해 사용되고, 야고보는 행복한 캠퍼가 아닙니다.

그는 이것에 대해 좋은 말을 하나도 하지 않는다. 오, 그래, 그는 한다. 그는 이것에 대해 좋은 말을 하나 한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으로 우리는 우리의 신과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네, 다음 줄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우리는 그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을 저주합니다. 그는 좋은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는 우리의 혀가 변덕스럽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변덕스럽습니다. 이제 그들이 우리 주님과 아버지를 찬양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으로 우리는 신을 찬양합니다. 분명히, 우리가 찬양한다는 다음 단어는 신을 언급합니다. 여기서 그는 우리의 주님이자 아버지라고 불립니다.

신은 신입니다. 진부한 말이지만, 우리는 성경에서 그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1:3,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찬송이 있을지어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서 부활을 통해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셨고, 살아있는 소망으로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자 아버지. 잠깐만요. 영원부터의 아들은 하나님이 있나요? 아니요, 하지만 성육신한 아들은 하나님이 있습니다. 사실, 히브리서 1장은 서로 인접한 구절에서 아들이 하나님을 가지고 있고 아들이 하나님이시라고 말합니다.

성육신한 아들에 대해 말하자면, 그러므로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 히브리서 1:9, 성령으로 당신을 모든 지상의 왕들 위에 왕으로 기름 부으셨습니다. 아들에 대해,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당신의 보좌여, 오 하나님, 8절. 아버지는 아들을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아들은 하나님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육신한 아들은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아버지는 그를 신이라고 부르고, 그는 성육신한 아들이며, 아버지에게 종속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아버지는 그의 신입니다. 저는 제 주장을 접습니다.

그의 신성한 칭호는 아버지의 신성을 보여줍니다. 그리스도와의 관계도 아버지의 신성을 보여줍니다. 성경은 아버지와 그리스도를 서로 연결하는 방식으로 아버지의 신성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방금 말한 용어로 성육신한 그리스도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신인으로서 그는 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의 세례 때, 아버지는 하늘에서 예수가 그의 아들임을 선포합니다(마태복음 3장). 예수가 세례를 받으신 후, 그는 즉시 물에서 올라갔습니다. 그러자 하늘이 그에게 열렸고, 그는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처럼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신권 정치, 보이지 않는 신이 그에게 안식하고 영이 결코 그를 떠나지 않을 것임을 보여주는 눈에 보이는 모습입니다. 영은 신인으로서 그의 영원한 소유입니다. 그리고 보라,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예수의 세례 때, 아버지는 하늘에서 예수가 그의 아들임을 선포합니다. 마태복음 11장에서 보았듯이, 예수는 그의 기적을 보고도 여전히 믿지 않고 그의 메시지를 듣지 못한 갈릴리 도시들을 꾸짖은 후, 아버지를 하늘과 땅의 주님이라고 불렀고,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사람이 없고, 아들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사람이 없고, 아들이 그를 계시하기로 택한 사람들만이 아버지를 압니다. 이것은 아버지 와 아들 사이의 상호 지식을 말합니다.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아들을 아버지 외에는 모른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아들을 압니다 . 오, 하지만 이런 식으로는 아닙니다. 그들은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아버지를 알지 못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아들과 아들이 그를 계시하기로 택한 사람들 외에는 아무도 아버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을 압니다. 아들은 아버지 를 알고 , 그가 그를 계시하기로 택한 사람들은 아버지를 압니다.

하지만 그것은 두 가지 다른 지식의 질서입니다. 하나는 아들이 아버지를 그들의 주님이자 구세주로 그들에게 계시하기로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하나는 삼위일체적 인격에 대한 상호적이고 고유한 신성한 지식으로 , 성육신에서 계속됩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세상에 보내십니다. 요한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저는 한 구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3:17.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인 요한복음 3장 16절에 따르면, 하느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우리를 보내셨고,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느님은 세상을 정죄하기 위해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이 아니라, 세상이 그를 통해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는 구원의 사명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는 심판을 가져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의 사명의 주된 목적이 아닙니다.

그는 선교사입니다. 선교사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뜻이라면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기 위해 가는 곳입니다. 그들은 심판을 가져오지 않지만, 그렇게 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듣고 거부하는 사람들을 데려옵니다. 그들은 전혀 듣지 못한 사람들보다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선교사의 구원 의도의 부산물은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아버지, 실례합니다, 그리고 아들과 성령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정죄하기 위해 그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이 아니라, 세상이 그를 통해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들은 세상, 믿지 않는 자들을 정죄할 것인가 ? 그렇습니다. 심판 구절은 아버지 와 아들이 심판하는 것으로 동등하게 나뉩니다. 영은 결코 아니지만, 삼위일체 신학의 추론으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마지막 날의 심판자는 누구입니까? 심판자는 삼위일체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분리될 수 없고, 그의 사역에서 그는 분리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구체적으로 아버지 와 아들이 그 역할에 참여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영이 그렇게 한다고 말한 적이 없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저는 그것을 성경적 자료로 인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짓습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이시며 분리될 수 없고, 그의 모든 외부적 활동은 세 인격 모두가 공유하기 때문에, 그것은 거룩한 삼위일체의 일입니다. 아버지는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이러한 것들 중 일부를 통해 아버지의 신성을 증명할 수 있는데, 그 관계는 상호적이지 않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가능합니다.

아들 이 아버지를 세상에 보냈다고 말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 틀렸습니다. 틀렸습니다.

아니요. 아니요. 명령이 있습니다.

그들은 동등합니다. 그들은 영원합니다. 그들은 영광과 권능에서 동등하며 , 그들은 영원히 경배를 받아야 하며, 그들은 그렇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아들은 아버지를 세상에 보내지 않았습니다. 성령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보내셨고, 나중에 아버지와 아들은 성령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아버지와 그리스도의 관계 자체가 아버지의 참된 신성을 보여줍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권위를 줍니다. 그 진술을 뒤집을 수 없습니다.

결코. 그리고 아들은 아버지에게 용서할 권한을 주었습니다. 아니요.

아니요. 효과가 없습니다.

17:2.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요한복음 17장, 그는 하늘을 향해 눈을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때가 왔습니다. 당신의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여 아들이 당신을 영광스럽게 하게 하소서. 당신이 그에게 모든 육체에 대한 권한을 주셨으니. 아버지가 아들에게 권한을 주신 또 다른 증거가 있습니다.

아니면 제가 말해야 할 첫 번째 시범이겠죠. 고맙습니다. 왜 아버지는 아들 에게 모든 육신에 대한 권한을 주었을까요? 성육신한 아들.

당신이 그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려 하심이니이다. 아버지가 사람들을 아들에게 주신다는 개념은 요한의 세 가지 선거 주제 중 하나이며, 요한복음 17장의 대기도에서 네 번 등장합니다. 이 기도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을 결정합니다.

그들에게 아들은 아버지를 드러내고, 영생을 주고, 그들을 지키며, 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나는 세상을 위해 기도하지 않고 , 당신이 내게 주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고 26절은 요약입니다. 죄송합니다. 24절입니다.

아버지여, 또한 당신께서 내게 주신 그들도 내가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서 당신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는 당신께서 세상의 기초에서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니이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권위 를 주십니다 .

또한 요한 계시록 2:27, 우리는 거기로 가지 않을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들 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요한이 아들에 대해 묘사한 주요 그림 중 하나는 생명을 주는 자,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베푸는 자라는 것과 함께 보이지 않는 아버지의 계시자로서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2장 49절과 5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 저는 제 마음대로 말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말입니다. 그러나 저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저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무엇을 말해야 하고 무엇을 말해야 하는지. 저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압니다. 그러므로 제가 말하는 것은 아버지 께서 저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들 이 알려주 는 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 아니요, 효과가 없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삼위일체 간 관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경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육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말할 내용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아버지의 계시자입니다. 요한 복음의 모든 페이지에서, 거의.

아버지는 아들에게 할 일을 줍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17장에서 멈춘 다음 구절에서 그것을 봅니다. 아니면 두 구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이것이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아버지, 저는 당신께서 제게 하라고 주신 일을 완수했다는 의미에서 땅에서 당신을 영광스럽게 했습니다. 아들과 성령은 아버지께 할 일을 주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할 일을 줍니다.

그리고 우리는 둘 다 성령에게 일을 하라고 했다고 말할 수 있지만, 지금은 그것이 우리의 주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으십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 그는 오직 아버지가 그에게 하기를 원하시는 일만 합니다.

그는 아버지께 순종합니다, 요한복음 6:38, 8 24, 14 31. 마지막 것은 정말 좋은 것입니다. 이 세상의 통치자, 요한복음 14 30이 오고 있습니다.

그는 나를 죽이러 온다. 그는 나에게 주장할 것이 없다. 그를 끌어들일 만한 죄가 내 안에 없고, 그는 어떤 식으로든 이 세상의 통치자라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나는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세상이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게 하려 하노라. 일어나, 여기서 떠나자. 예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아버지께 순종하셨다.

그리고 그는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면 그가 너희에게 다른 보혜사를 주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곧 진리의 영이라. 아버지는 신성한 칭호를 가지고 계십니다.

아버지와 그리스도의 관계는 복잡하지만, 그것은 아버지가 신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것은 아들의 신성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은 때때로 아들의 성육신에서 인간성을 강조합니다.

아버지는 자신 안에 신성한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자존이 포함됩니다(요한복음 5:26). 아버지는 자신 안에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원인 없이 태어났다. 어린아이의 질문, 엄마, 누가 신을 만들었어? 아무도 신을 만들지 않았어, 자기야. 신은 항상 존재했어.

엄마, 이해하기 어렵네요. 인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얘야. 오, 세상에.

아버지는 자신 안에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도 그를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그는 원인이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는 살아 계신 신입니다. 무한한 이해력, 시편 147편 5절. 그의 이해력은 무한합니다.

무소부재, 예레미야 23:23-24. 나는 가까이 있는 신일 뿐인가? 나는 멀리 있는 신도 아닌가? 답은, 그래, 오, 그래. 그는 가까이 있다.

그는 임박해 있어요. 그는 가까이 있어요 . 오, 그는 멀리 있어요.

그는 초월적입니다. 어떻게 설명할 수 있나요? 저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신이 삼단논법을 다시 한 번 하는 그런 자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만이 소유한 특정한 자질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런 자질들을 신, 즉 아버지에게 돌립니다.

그러므로 아버지는 신입니다. 전지전능, 이사야 40:28. 이사야 40은 놀랍습니다.

신의 초월성에 대해 이야기해 보세요. 신의 눈에 인간은 메뚜기입니다. 으악.

놀랍다. 이사야 40:28. 듣지 못하였느냐?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여호와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요 땅 끝까지 창조하신 자이시니라.

그는 인간처럼 기진하거나 지치지 않습니다. 그의 이해는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영원합니다. 시편 90편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영원에서 영원까지,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네, 하지만 문맥을 주의하세요. 주님, 당신은 산이 생겨나기 전이나 세상과 땅과 세상을 형성하기 전 모든 세대에 걸쳐 우리의 거처가 되셨습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영원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거처입니다. 할렐루야.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의로움. 요한복음 17:25. 오, 의로운 아버지여, 예수께서 그 위대한 제사장 기도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주권. 마태복음 11:25. 우리는 이미 거기에 있었습니다.

아버지, 주님, 하늘과 땅의 주님. 그는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지식.

우리는 그가 무한한 이해력을 가지고 있으며 모든 것을 안다고 이미 말했습니다. 많은 말을 하면 들으실 것이라고 생각하며 기도를 거듭거듭 반복하는 이교도들처럼 되지 마십시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8절. 산상 설교.

그들과 같지 마십시오. 당신의 아버지는 당신이 그에게 묻기 전에 무엇이 필요한지 아십니다. 왜 우리는 그가 우리에게 그에게 묻기를 원한다고 기도합니까? 그는 당신이 그에게 묻기 전에 무엇이 필요한지 아십니다.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관대합니다. 마태복음 5:45. 그는 햇빛과 비를 만듭니다.

그는 그 점에서 차별 없고 관대한 신입니다. 그의 선함은 사실상 그의 모든 피조물에게 있습니다. 그는 동물에게 선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귀속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로 알고 있는 일반적인 하나님. 그의 자비.

누가복음 6:36. 예수께서는 당신의 아버지가 자비로우신 것같이 자비로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롭지 못한 그리스도인은 모순어, 즉 용어의 모순입니다.

들어보세요, 친구들이여, 우리는 자비의 전문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 자비의 샘에서 깊이 마셨기 때문입니다. 분명,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습니다. 꾸지람할 시간이 없습니까? 물론 있습니다.

그것을 바로잡을 시간이 없나요? 물론 있습니다. 판단할 시간이 없나요? 그렇습니다. 판단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은 너무 복잡합니다.

여섯 번 판단하지 말라고 합니다. 여섯 번 판단하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것에 대해 조심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 자비를 받는 데는 전문가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데 풍부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생각할 때, 그녀가 자비로운 여자라고 말합니까? 자비는 그녀의 모공에서 나옵니다.

그것이 알려질 수 있는 멋진 방법이 아닐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는 변덕스러운 우리와 달리 신실합니다. 그에게는 변화나 그림자가 없습니다(야고보서 1:17). 그의 천상의 궤도, 우리 위를 둘러싼 빛과 같이, 하나님께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는 꾸준합니다. 그는 믿음직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충실합니다.

사랑 , 하느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요한복음 3:16. 신성한 속성은 풍부하고, 때로는 아들 또는 영에게 귀속됩니다. 하지만 엄청나게, 풍부하게, 아버지에게 귀속됩니다. 너무나 많아서 우리는 그것을 알아차리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우리는 종종 소홀히 여기는 것을 의도적으로 주목하고 있습니다. 예배. 아버지는 오직 하나님께만 속한 예배를 받습니다.

그의 백성은 그를 찬양합니다, 야고보서 3:9. 우리의 혀로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이자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것은 맥락상 좋은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같은 혀로 우리는 그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들을 저주하고, 그로 인해 저주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 자체로는 좋은 일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혀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빌립보서 4:20. 하나님의 백성은 그에게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나의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있는 그의 풍성함에 따라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실 것입니다.

빌립보서 4:19.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영원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송입니다.

모든 일 에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하나님은 경배를 받으실 만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속한 예배. 그는 종교적 헌신의 대상입니다, 야고보서 1:27. 우리는 아마 야고보가 한 것처럼 그 진술을 끝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순수하고 더럽혀지지 않은 종교는 이것입니다.

군중에게 전파하고 죽은 자를 살리는 것. 아니, 세상에서 더럽혀지지 않고 고아와 과부를 그들의 곤경에 처하게 하는 것. 농담이냐? 아니, 농담이야.

물론, 그것은 야고보서의 역사적 맥락과 관련이 있습니다. 맥락은 문학적 맥락, 즉 페이지의 단어를 의미할 뿐만 아니라, 연설 사건을 의미합니다. 역사적 맥락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요. 그렇게 가난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지만, 제임스가 걱정했던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구약과 신약에서 과부와 고아는 종종 소홀히 여겨지고 이용당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마음과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백성들이 똑같이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할 때, 그들은 순수하고 더럽혀지지 않은 종교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심하세요. 야고보는 종교를 비난합니다. 종교라고 묘사된 종교를 비난하고, 그의 책의 같은 장에서 그것을 칭찬합니다. 세례는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행해집니다, 맞죠? 맞아요, 하지만 그것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행해집니다. 그것은 엄청난 삼위일체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마태가 기록한 것처럼 예수께서 그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름답네요. 신자들은 그를 위해 살아요. 고린도전서 8:6은 엄청나게 중요한 구절이고, 저는 지난 몇 년 동안 그리스도의 신성을 위해 이 구절을 발견했습니다.

고린도 전서 8장 5절에 따르면, 하늘이나 땅에 소위 신들이 있을 수 있지만, 사실 많은 신, 소문자 g, 많은 주, 소문자 l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분의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데, 모든 것이 그로부터 있고 우리는 그 분을 위해 존재합니다. 그리고 한 분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데, 모든 것이 그 분을 통해 있고 우리는 그 분을 통해 존재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식별되고, 아버지는 하나님으로 식별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 우리의 관심사입니다. 아버지의 신성입니다. 그래서 우리 는 우리에게는 한 분의 신과 아버지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우리에게는 많은 신과 많은 영주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그에게서 나왔고, 그는 창조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를 위해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한 인간이나 우리 자신이나 천사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삽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 맥락에서 아버지 입니다 . 우리는 교제를 갖습니다, 요한일서 1:3. 요한의 목표 중 하나는 여러분이 우리와 교제를 갖기를 바라는 것이고, 우리의 교제는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관례적으로 성령을 빼버립니다. 그건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는 요한 1서에서 성령을 언급하는데, 좋은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우리의 교제는 아버지 와 그의 아들과 함께합니다. 요한일서의 교제는 구원, 공유된 구원에 대해 말하는 또 다른 방식입니다. 그것은 인간들 사이에서 공유되지만, 무엇보다도 거룩한 삼위일체에서 나오고, 삼위일체를 포함합니다. 요한은 그 중 두 인격을 골라냅니다.

그리고 물론, 그는 첫 번째 사람인 아버지 로부터 시작합니다 . 그리고 우리는 그에게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3:14~17.

나는 이 구절들을 반복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지만, 우리는 아직 이 구절을 다루지 않았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시작합니다. 이런 이유로 나는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 습니다 .

분명히, 성경에는 다양한 기도 자세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저는 그것에 대해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에게서 이름을 받았으니, 그의 영광의 부요함에 따라 그가 그의 영을 통해 여러분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하게 하여 그리스도께서 믿음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에 거하시게 하려 하심이요, 여러분이 사랑으로 뿌리를 내리고 터를 잡아 모든 성도와 함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무엇인지 깨닫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있는 힘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것은 당신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으로 충만해지도록 하는 당신의 지식의 통로입니다. 나는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 대문자 F는 이 곳에서 그 단어의 올바른 해석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하나님께 적절하게 주어진 직함만을 가지고 계십니다.

성육신하신 아들 , 심지어 그리스도와의 관계는 아버지가 하나님임을 보여줍니다. 아버지는 그에게 귀속된 신성한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경배를 받으시고, 마지막으로 아버지는 오직 하나님만이 행하시는 일을 행하십니다.

제가 이걸로 당신을 지치게 한다면 미안하지만, 이건 삼단논법이에요. 신만이 하는 특정한 행위가 있어요. 아버지가 그 행위들을 하세요. 그러므로 아버지는 신이에요.

그 결론을 내리는 것은 불가피합니다. 저항할 수 없는, 제가 원했던 단어가 있습니다. 저항할 수 없는 결론입니다. 아버지는 하나님의 역할을 맡고 행하십니다.

그는 모든 것의 창조자입니다, 고린도전서 8:6. 모든 것이 그에게서 나왔습니다. 그는 잃어버린 자의 구세주가 되도록 그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요한일서 4:18. 아버지는 아들을 세상의 구세주가 되도록 보내셨습니다.

세상은 정말 나쁘다. 하지만 신은 어차피 이 세상을 사랑하신다. 기쁘지 않은가? 신은 구원을 적용하기 위해 성령을 보내신다, 요한복음 14:26. 나는 너희에게 진리의 영을 보내겠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간다. 나는 너를 홀로 두지 않을 것이다. 나는 영을 보낼 것이다.

아버지께서 주시는 것, 실례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성령을 보내십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4:26. 아버지께 구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분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을 보내실 것입니다.

나는 성경을 만들어내지 않는 게 낫다. 좋은 생각이 아니야. 하지만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가르쳐 줄 것이다.

아버지는 믿는 자들에게 거듭남을 주십니다, 베드로전서 1:3.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찬송이 있을지어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우리를 살아있는 소망으로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죽음에서. 삼위일체는 거듭남에 관여합니다.

구체적으로, 아버지는 그것을 원하십니다. 그는 그것을 계획하십니다. 아버지는 은혜와 평화를 주십니다, 로마서 1:7. 요한이서 3. 아버지는 그의 자녀들에게 순종을 명령하십니다, 요한이서 4. 이것들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것들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시는 역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린도후서 1:3에서 보았듯이 우리의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모든 위로의 아버지이시니, 우리가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위로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살리실 것이요, 요한복음 5:21.

이것은 성경에 나오는 세 인격에 대해 모두 언급되어 있습니다. 주로 신성한 수동태를 지닌 아버지에 대해 언급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아들에 대해 언급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서 적어도 한 번은 성령이 행동에 참여합니다. 아버지는 공평하게 판단하십니다. 만일 여러분이 아버지라고 부르신다면, 각 사람의 행위에 따라 공평하게 판단하시는 분이라면, 두려움 속에서 지상에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베드로가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17. 루터는 이 두려움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섞인 두려움이라고 말했습니다. 존 메리의 말처럼, 그것은 공포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명예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사람들이 부모를 공경하고 두려워하던 때와 같습니다. 성경적 자료는 풍부합니다. 저는 이 말로 분명히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버지는 신입니다.

다음 강의에서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아들도 하나님임을 증명할 것입니다.   
  
이것은 로버트 A. 피터슨 박사와 그의 신학 또는 하나님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이것은 세션 6,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